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 삶과 사회의 밑그림 - 문화비전

창간에 붙여 부산문화의 건강한 담론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칼럼 정책연구센터에 바란다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집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소개

문화정책이슈 1 문화비전이 그리는 10년 후 우리의 미래

문화정책이슈 2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정책보고서 갈무리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현황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2020 부산문화재단 공모사업 일정 안내

부산문화의 건강한 담론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강동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이 내부 기구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 지 이제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10여 년 전 잇따라 문화재단을 설치한 이후 각종 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이 이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창립 이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끼친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문화 지형도의 변화에도 나름의 역할을 해낸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광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화두로 남아 있고, 지역 재단이 만들고 시행해 온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민과 문화예술인에 충분히 밀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이지만, 아무래도 독자적인 문화정책의 개발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때로는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성을 갖춘 지원 프로그램, 때로는 꼭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당대의 시대정신을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창의력과 도전정신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통찰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올바르게 설정된 문화정책이 이런 여러 능력들을 끌어내는 기관차 노릇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국의 문화재단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문화정책 연구와 개발 역량의 강화라고 믿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선도적으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런 깨우침 때문입니다. 부산의 이런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이미 벤치마킹을 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가 중심이 돼 지난 9월 발표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역시 전국의 여러 문화관련 기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정책연구센터의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이 펼쳐온 사업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그를 토대로 한 새로운 프

로그ラム의 모델링, 지역 문화 현장과 재단과의 가교 역할, 국가-자치단체와의 새로운 협업 모델 구축 등등. 나아가 부산문화 전반을 관찰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의 개발, 국내외 우수사례의 소개, 각종 문화 정보의 제공과 데이터베이스화도 정책연구센터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내야 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지금 이를 위한 토대 다지기에 한창 분주합니다. 자체 조직 정비, 연구과제의 선정과 수행 방법에 대한 검토,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 도출 등등이 그것입니다.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출범한,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받아야 할 터입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정기간행물 형식의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를 선보입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부산문화재단의 각종 시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물론, 국내외 문화정책의 동향, 문화 관련 각종 데이터를 담아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이 있는 논문을 요약해서 소개하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노릇도 하겠습니다.

‘이슈페이퍼’란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두꺼운 책자는 아니지만 그 체제와 내용은 알차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적 화두를 압축해 고갱이를 담아내겠습니다. 부산의 문화담론을 차곡차곡 묶어내겠습니다. 시민, 문화예술가들의 요구도 성심껏 반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산문화예술의 미래를 그려 보이는 청사진이자 부산문화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부산문화에 대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끊어 넘치는 작은 용광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에 대한 시민,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질정,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간곡히 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에 바란다

이지훈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래도 ‘전문성’과 ‘맞춤형’이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알다시피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 출연기관이다. 예산도, 정책도 부산시가 마련한 틀에 맞게 운영된다는 뜻인데,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내 문화계가 모범으로 여기는 영국 예술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구현한다. 정부는 어느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가에 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그것은 위원회와 체결하는 ‘지원금 합의문서(Funding Agreement)’로 실현된다.

그 유명한 ‘팔 길이 원칙’, ‘불간섭주의’도 위원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원칙이 아니다. 위원회가 정부와 정책적 협의를 거친 뒤,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금 분배에 있어 독자성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것이 팔 길이 원칙의 현실이다.

이 관점에서 부산시와 문화재단을 생각하면, 시가 재단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고, 재단이 자율적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은 팔 길이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전문가가 문화재단의 시급한 과제로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을 꼽는 이유는 뭘까.

문화재단의 프로그램 개발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이 한 가지 이유일 듯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아직도 문화예술진흥이 창작자 지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 창작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창작 지원이 문예진흥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문학이라면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문학작품이 유통, 소통되는 방식을 파악, 개선하고 생활문화동아리 실태, 국내외 문학행사-축제를 연구해야 한다. 또 문학이 부산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처럼 문예진흥에서 창작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창작 외적인’ 활동 지원이다. 예술매개(홍보, 교육-컨설팅, 정보-교류, 공간), 생활문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이 ‘큰 그림’ 속에서 각 분야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산시도, 문화재단도 ‘충분히’ 잘하진 못한 것 같다. 부산시는 비록 큰 그림은 그려도, 전문-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맡을 담당자의 연속성과 현장 밀착이 부족했고, 문화재단은 ‘그날그날’의 업무 수행에 급급한 나머지 큰 그림 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이 일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현장’과 닿아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예술인들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정책연구센터는 큰 그림 속에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와 동시에 전문가와 시민들을 연결해야 한다.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동력은 여기서 나올 것이다. 또 그래야만 예술가와 시민들에 도움을 주는 ‘선진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동안 문화재단이 한 일이 많다. 그럼에도,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을 것 같다. ‘커뮤니티 아트’, ‘문화다양성’ 분야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공허한 표어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사례-모델 발굴이 시급하며,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상응하는 문화콘텐츠와 ‘인문-기술 융합’ 문화콘텐츠 개발은 얼마 안 가 현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시대의 변화는 문화재단이 단지 해마다 예술창작 지원금을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요청한다. 올해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한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다. 시대정신에 걸맞은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연구센터 개소식 사진>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문화 기관에서 앞 다투어 2030 문화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을 준비하며 만든 문화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화비전이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을 바꿔놓을 만큼 따뜻하고 설레는 계획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슈페이퍼 첫 번째 주제는 ‘문화예술로 달라질 10년 후 우리 삶과 사회의 밑그림- 문화비전’입니다. 다양한 문화비전이 만들어낼 10년 후를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0년 후 문화예술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상상해 본 10년 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봅니다.

문화예술계에 복잡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것을 계기로 문화예술계를 떠나는 친구도, 오히려 굳세게 버티는 친구도 반반이 되어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버티는 것이 삶이 된 우리는 부산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버텼고, 싸웠고 그것은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조례는 개정될 것이고, 예술인 복지 계획은 예술인들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될 것이다. 자리를 잃지 않을 예술인들은 버텼고, 앞으로 버텨가며 부산의 다른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현수정(영화를 공부하는 학생)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변두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조명하는 것이다.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중앙의 영토에 속하지 못하고 경계 바깥에서 머무르고 흐르면서 살아간다. 미래에도 여전히 예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철거당하는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예술과 미래의 예술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의 자리와 공간을 만드는 언어와 리듬이 되어야 한다.

조은하(부산에서 퀴어인권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퀴어 성폭력 생존자)

문화비전이 10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개방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강조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참여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참여도 여유와 안정적인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비전을 통해 10년 후에는 저와 예술가들의 삶이 예술 활동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예술의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정책이슈페이퍼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정승민(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실현해 보여주는 20대의 공연, 축제기획자)

‘길이 만남이 있는 공간’이 되는 금정구가 되면 좋겠다. 퇴근 후에 장성시장 “나유타”에서 채식요리를 먹고 “복수가게”에서 빵을 산다. 꽃집 “위로”에서 꽃다발을 고른다. 거기에서 이웃 주민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문화/예술은 ‘타인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인(혹은 작품)과 만났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준다. 길 위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안아 줄 수 있다면, 더 살기 편한,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나까(싱어송라이터, 채식요리사, 무국적 비건 채식 식당 ‘나유타’ 운영자)

원고 요청이 왔다. 이런 분야는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래도 적어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30 문화비전을 살펴봤다. 역시나 몇 번을 다시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 분야 정책이 섞여 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왜 제외되었을까? 일상에 존재하지만 분야로 정의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것. 사실 나에게 문화란 그런 것 같다. 나는 문화가 공기 같았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개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모든 것들에 문화적 요소가 있고, 모든 사람 주변에 존재하는 것. 그렇기에 차별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엄창환(심오한연구소 공동대표)

독립예술축제 제로페스티벌이 20주년을 바라보게 된다.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개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으면 좋겠다. 부산에서 시작된 축제지만 아시아 각국으로 널리 퍼져 개최되어도 좋을 것 같다. 저마다의 독립적인 예술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는 10년 후엔 마흔이다. 40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인데, 그때 나는 어디에서 어떤 책임을 지며 살고 있을까. 내가 지는 책임이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옳은 것이길 바란다.

이대한(현 부산독립예술축제 ZERO FESTIVAL 축제감독, 레게 밴드 해피피플에서 디제잉, 라이브믹싱을 담당하고 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여유롭게 걸어 동네에 있는 전시장에서 맘에 드는 한두 점의 작품을 오래 감상한 후, 인근 소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더니 이웃 분들이 친한 지인들이 참여한 공연이라며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공연이 끝나고 이웃들과 근처 맥주 가게에 들러 오늘 본 작품과 공연에 대한 소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꽃을 피운다.

김경화(설치미술작가, 협동조합 창 이사장)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마을에 도착한다. 꾸뻑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마을 입구 ‘가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글을 쓴다. 나의 건너편에는 자신의 흙 문은 장화를 뺀 위에 그리는 농부가 있고, 그 옆에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잔뜩 올려놓고 테이블 아래에서 턱을 괴고 엎드려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있다. 구석에 방음처리가 된 방에는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태블릿 속 디지털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고, 아침마다 ‘가게’ 앞에는 주민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주인은 말해준다. 오라고, 언제든 춤추러 오라고. 춤은 모든 감정의 언어이니 당신의 몸속이 흘러넘치면 언제든 오라고.

‘가게’의 뒤뜰 별채에는 마음껏 울 수 있는 좁고 기다란 방이 있다. 사람들은 방 밖에서 하루 종일 ‘울고 나온’ 그 사람을 축하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그는 자신을 지배했던 슬픔을 색깔감의 종이로 접어 그들의 머리 위에 줄줄이 이어 엮는다. 주말에는 아무도 먹고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다 같이 모여 먹고, 한 데 모여 한꺼번에 처리한다. 다 같이 모인 그 자리가 공연 자리가 되고, 영화를 보는 자리가 되고, 같이 노래하는 자리가 된다.

바닥에 엎드려 턱을 괴고 책을 읽던 아이 하나가 다가와 “아줌마, 책 써요?” 나에게 묻고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 있는데...” 라고 말하며 두 엄마와 사는 일상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디지털 파일을 자랑스레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게.’ 그 가게의 이름은 ‘예술 먹는 가게.’ 마을마다 입구에 자리해 누구든 살피우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가게.

제일 먼저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썼던 우리는 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을까? 누구의 인생이든 인

생이 우리에게 권한 몇 번의 왈츠를(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중에서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그런 세계가 되고, 그런 마을이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김비(소설가, <길을 잃어 여행 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 공저)

상상해본다. 10년 후의 지역문화를. 작가는 저작권을 누구와 나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해주겠다, 멘토링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공동 저작권이란 단어가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된 지역문화. 소설을 연재 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마다 다이렉트 투고 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연재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기획사와 에이전시가 없는 지역 문화. 그건 다 작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임을 누구나 아는 지역문화. 원작에 대한 저작권은 다 주는 대신 2차 저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이 인쇄된 계약서를 슬쩍 내밀고 수익 분배를 하자는 걸 코웃음 치며 ‘1차는 2차는 저작권은 다 작가 거예요’라며 거부할 수 있는 창작자가 많아지는 미래의 지역 문화. 상상은 현실이 된다, 되어야 한다.

김유리(작가 출판사 키스더북스 대표·기획사 아주작은코끼리 대표)

10년 뒤엔 정말이지 시대착오적인 법이 개선되길 바란다. 특히 대학가 앞에서 힘겹게 청년문화를 지키고 있는 라이브클럽, 라이브 펍들이 음향장비를 갖추고 춤과 노래를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허다하게 단속대상이 되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 지역 뮤지션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법보다 먼저 생겨난 춤과 노래를 규제하는 법은 당장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방호정(부산힙스터연맹 총재)

“내 삶과 함께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소개

고윤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2018년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에서 한 시민이 이런 요청을 했다. “예술을 통해 사회의 포용성이 촉진되고, 시민 누구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 활동이 많아져서 시민의 삶을 변하게 하는 재단이 되어주세요”라고.

부산은 점점 외로운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노인인구와 자살률은 특·광역시 비교 1위이며, 빈집은 1만 4천여 호에 달한다. 1인 가구 수도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빈곤율도 높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경제적 또는 도시재생의 가치에 주목했던 점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부산문화재단은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치러진 지난 9월 25일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으로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5가지 전략과제 20개 추진과제 65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총 3,687명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고,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실천과제와 57% 가량을 연계해 구성했다. 특히 외부 연구기관에 수탁하지 않고 시민·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해 재단의 내부 구성원이 집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문화예술이 공동체 결속과 시민의 건강 및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는 많다. 미국 예술문화부에서는 예술이 건강 문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가이드북 「ART&WELL-BEING TOWARD A CULTURE OF HEALTH」를 제작했고, 영국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지역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에서도 2010년 대비 2015년 문화 분야가 가장 높은 유인 요인¹⁾이 되었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에서도

비용편의 비율이 107%로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²⁾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자료에서 예술이 삶과 사회 변화의 힘이 되어 왔다는 증거는 많다. 다만 그동안 문화 정책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인 과제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 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이 지닌 사회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겠다는 과제를 향후 10년의 주요 미션으로 내걸었다. 특히 UN에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문화적 실천을 제일 첫 번째 추진과제로 삼았다.

더불어 그동안 공급자형 예술 지원 체계에서 매개하는 플랫폼형 지원체계의 전환과, 향유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과제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부산의 해양성이라는 지역성을 살려 아시아 문화 연대 구축, 신조선통신사 다각화, 자매우호도시 해양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과제를 담아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산정했다. 초기 단계(2020-2022)에는 체계 개선 연구와 기존 사업 재구조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중기(2023-2025)에는 우수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네트워크를 내실화하며 장기적(2026-2030)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선도 기관이자 해양문화도시 허브로서 부산의 위상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예술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재단의 다짐에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1) 부산지역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복동 연계 방안 (부산복지개발원, 2017)
2) 2018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보고서(지역문화진흥원, 2018)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체계도>



출처: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문화비전이 그리는 10년 후 우리의 미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토크아보기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9년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10년의 전망을 세우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문화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등 많은 기관들이 2030 문화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긴 호흡으로 문화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문화정책 이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의 문화비전을 소개합니다. 많은 문화비전이 수립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 수립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고,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앞날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며, 10년 동안 달라질 우리 삶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문화비전에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방향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창의성> 사회의 창의성 확산
의제 및 대표과제	1. 개인의 문화 권리 확대 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지역문화분권 실현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정책(聽策)포럼 #온라인 국민제안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 문화비전은 참여정부의 문화비전<창의한국>처럼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수립되었다.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새문화정책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1년여 기간 동안 비전 수립 작업을 주도하였다. 새문화정책 준비단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분과로 구성되었고, 23차례의 정례회의와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던 13차례의 문화청책(聽策) 포럼, 6회의 분과별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이슈와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제안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미투 사태 이후 성평등 관련 이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신속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 #문화권 보장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초초단위 #지역혁신 문화플랫폼 #참여와 협치의 행정구조

참여정부 문화비전 <창의한국>이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역할을 조명했다면, 이번 문화비전에서는 문화의 주체로서 '사람'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 내재한 문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것에 집중했다.

비전의 주요 가치를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설정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전략목표로 잡았다.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를 통해 사회의 창의성이 확산되어 사회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9개 의제 및 47개 대표과제를 도출하였다. 눈여겨볼 지점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 부분에서 사회문제 해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생활권과 밀접히 관련된 기초 단위에서 문화적으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고, 공론·학습·해결의 지역 혁신형 문화플랫폼 모델을 구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대표과제 중 '문화적 전환도시' 제안 등은 문화와 환경의 결합이라는 문화의 사회적 확장의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화비전의 실행전략으로 '참여'와 '협치' 원칙을 강조하였고, 인간생활의 핵심 권리인 문화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최소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전략목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운영
전략과제	예술의 지평 확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기관운영체계 혁신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아르코혁신TF #현장예술인 간담회 #현장소통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2018년 현장 예술인 및 전문가가 포함된 '아르코혁신TF'를 발족하여 조직혁신과 사업혁신 분야에서 23개의 혁신 의제를 도출하였고, 후속조치로 '소통혁신팀'을 구성하여 혁신 의제 추진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아르코 비전 2030TF'에서 비전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간담회, 비전 수립 워크숍 등을 통해 예술가 및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까지도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관련 예술가 레지던시 문제' 등 예술 현장에서 제안되는 문화 관련 의제들에 대해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예술창작 #예술가의 활동환경 조성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아카이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이다. 예술창작에 방점을 두고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면서 예술가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듯하다. 이를 기반으로 '예술가가 하고 싶은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으로 누구나 가까이에서 창조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구'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을 비전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작품의 유통과 확산 과정에 대한 집중이 눈에 띈다. 비평 확대, 유통망 마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창작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또한 현행의 보조금 지급 외에 변화하는 예술창작환경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형태를 모색하고,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여건들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언급하면서, 예술의 사회기여도를 표현하는 예술지수 발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의 참여활동 확대를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문화예술을 사회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예술기록유산 아카이빙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부산광역시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

비전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4대가치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
4대목표	해양문화도시	포용문화도시	융합창조도시	문화협치도시
10대 전략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 위한 문화자유구역 조성 •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립 위한 해양문화 도시 브랜드 구축 • 시민 평화문화 공감 위한 남북문화 교류 추진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 다양성 확산 위한 경계예술문화활동 육성 • 시민 문화권리 보장 위한 일상문화활동 지원 강화 • 시민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생애주기별 문화기획 확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도시 • 4차산업혁명 대비 위한 기술융합형 예술시장 창출 • 기술기반시대 대응 위한 창의적 공간 조성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 혁신도시 • 문화행정 혁신 위한 시민문화권리선언 • 문화생태계 조성 위한 문화재정확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도시 • 정체성 확립 위한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 전통성 강화 위한 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 지역성 확산 위한 권역별 해양문화지역 조성	행복을 공감하는 공유문화도시 • 사회적 치유와 회복 위한 문화가치 확산 • 지역 공동체 복원 위한 맞춤형 문화재생 • 공동체문화 확산 위한 마을문화 환경조성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창조도시 • 문화예술인 창작활성화 위한 지원체계강화 • 지역문화 역량강화 위한 문화인력 양성 • 문화예술인 생활보장 위한 복지체계 구축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는 문화분권도시 • 문화분권 실현 위한 문화자치기반조성 • 부산형 문화협치 실현 위한 시민참여기반조성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도시 • 지역격차 해소 위한 균형있는 문화시설 조성 • 지역문화특화 발전 위한 문화특구지정 추진 • 시민중심 생활문화 활성화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선 •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위한 E-문화파크	시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 시민 문화학습 기회 확대 위한 문화예술교육체계 개선 • 시민 문화학습 강화 위한 문화예술교육플랫폼 구축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아젠다 도출 #타운홀 미팅 #구군별 공청회

부산광역시도 2007년 <부산문화비전 2020> 선포 이후 2017년부터 문화비전 2030 계획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년 차에 정책 아젠다 도출과정을, 2년 차에 비전 수립을 진행하였다. 준비기간 동안 10차례의 타운홀 미팅, 18차례의 라운드테

이블을 비롯한 총 4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구, 군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이슈를 수집하는 과정을 수행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해양문화도시 #사회적 치유와 회복 #남북문화교류
#소셜아티스트 #문화다양성 #E-문화파크

부산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은 시민을 문화정책의 주제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이다. 시민의 주도성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해양도시로서의 부산의 정체성을 함께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역 차원에서 남북문화교류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도 특징적이다. 해양도시라는 특징과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영화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남북한 문화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부산문화비전에서도 예술의 사회적 치유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소셜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공동체 내 관계 회복을 위한 '정담정(情談井)'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술가들이 교육 및 복지 영역에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기존 사례를 넘어 주도적으로 예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예술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비전을 통해 상상 가능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과거의 문화계획이 일부 행정가 및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30 비전들은 현장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을 표방한다. 다만 비전 내용에서 현장 의견 반영의 상세한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앞서 살펴본 계획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다. 참여정부 문화비전인 <창의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도시 재생, 복지 등의 영역에서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늘어났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전면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도구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이 된 지금, 예술과 지역사회 간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비전은 말 그대로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실행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비전 실현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수립이다. 계획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의 변화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틀 거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제도는 구축 이후에도 여러 의견 등을 반영하며 진화해나가야

한다. 문화비전 또한 설계안으로서 구체적 결말에 대한 기대와 예상만 존재하고 있다. 10년이라는 긴 호흡을 염두에 둔 문화비전은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현장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과정은 투명하게 현장에 전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소통 과정 또한 지켜져야 한다. 비전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무리 높고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해나가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전은 영원히 우리 일상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비전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우리의 이야기기를 어떻게 개선 과정 속에 담아낼 것인가일 것이다.

* 지면 관계상 비전의 세부과제를 다 실지 못했습니다. 문화비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2030'
https://www.mcst.go.kr/kor/s_policy/culturevision2030/culturevision2030.js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index>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조정윤 부산광역시 문화정책협력관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지점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함의로 이끌어내는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³⁾

한편, 2015년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한 명이라도 소외 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으로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사회 전체의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분야는 SDGs의 17개 목표에는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UN 산하 UNESCO를 중심으로 문화 분야도 '문화의 사회적 영향' 강화를 위해 SDGs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는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 보고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⁴⁾이 발표되었으나, 후속 연구와 문화예술기관의 실천전략이 부족한 가운데 제시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유네스코를 비롯한 해외 문화예술기관들의 다양한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8년 'Culture for the 2030 Agenda'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PEOPLE), 세상(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5가지 분야(5Ps)에서 문화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설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최근 'Reshaping Cultural Policies (global report 2018)'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정책 재구성의 목표 추구를 SDGs에 연계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DGs 17개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해외 동향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교육 분야가 SDGs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디어와 예술이 기본이 되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 교육가들은 SDGs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⁵⁾

부산문화재단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수립하였다. '시민과 함께,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산문화재단'이라는 사회적 사명(MISSION)을 선포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과제로 UN의 SDGs를 문화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재단의 사업 목적은 대체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확립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왜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했다.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은 SDGs의 17개 과제를 통해 재단 사업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체계로 재구조화' 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사명과 목표에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SDGs 목표 코드제를 수단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만창의문화촌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0)'라는 SDGs 실현을 위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UN SDGs의 이행당사국으로 목표의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이다. 향후 문화 분야에서 국제협약을 근거로 가시적인 계획 수립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2030은 선언적 의미의 SDGs 실행 약속을 넘어서야 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SDGs 실천계획을 선도하는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 추진과정, 성과와 한계에 관한 결과, 환류 체계를 국내 문화예술기관에 공유해야 할 것이다.

3) 영국 문화부(DCMS)는 2015년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캐나다는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2017)', 호주는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WA(2019)'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S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 17개 최대 공동 목표



17가지 목표 중 문화 해당 코드(번호)

빈곤퇴치(1), 건강과 웰빙(3), 양질의 교육(4), 성평등(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9), 불평등 완화(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 지속가능한 소비(12), 기후변화대응(13),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

4) 본 연구는 SDGs의 주요 실천과제들과 '문화' 간의 관계, SDGs의 실행에 기여하는 국내 문화정책의 가치, 목표, 정책지표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가치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다양성(Diversity)'이라는 근본적인 지향가치를 모토로 '포용(Inclusion)', '혁신(Innovation)', '회복(Resilience)', '참여(Participation)'를 제안하며, 25대 선도시표를 제시하였다.

5) 캐나다 예술교육가인 마크 레이드(Mark Reid)는 Arts Education and the SDGs라는 기고문(2017)에서 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SDGs 17개 각 과제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질의 교육(4)에서는 종합교육에 예술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현황

송교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실장

미투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2017년 말 문학, 미술, 사진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가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협력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공연예술계(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와 대중문화예술계(만화, 방송, 음악, 패션)의 성폭력 실태조사도 추진되었다.

이처럼 분야별 조사는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역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은 부산문화재단이 2018년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조사> 과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피해 사례 조사(조사명 :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들이 만연함에도, 묵인되어 왔던 것에 비해서는 뒤늦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

2018년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면조사가 아닌 온라인 조사로 추진되었으며, 예술인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2,000명을 조사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취약한 예비 예술인(청년, 대학생 등)을 조사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10~20대 연령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28.5%)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36.4%, 여자 62.3%, 예술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음악, 문학, 국악, 연극, 무용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선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33.3%가 심각하다고 응답,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상의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술과 연극, 영화 분야 예술인은 타 분야에 비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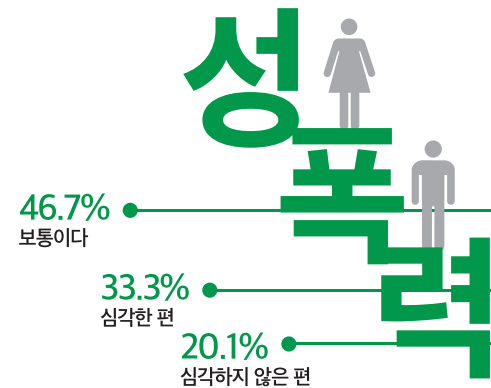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이하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예술계 내의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특유의 분위기도 큰 비중(31.4%)을 차지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성폭력의 주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30대 이하 예술인은 권력관계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로 인식하는 등 세대별로 원

인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하였다. 분야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음악과 무용, 국악 분야는 예술계 내 심각하게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문학과 연예 분야는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는 문화예술계 활동 중 직접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 응답 비율은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드러났다. 직접 경험한 경우와 피해를 목격한 경우 모두 성폭력의 유형과 가해자 직위를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유형은 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음담패설,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위는 주로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대면 가능성이 높은 교수/강사/교사 및 선배 예술가의 비율이 높다고 응답되었다.

직접 경험한 성폭력 피해 이후에 대응방법, 목격된 피해의 해결 결과에서도 대체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여기거나, 작품 활동에서 불이익 등 가해자의 보복과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끝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징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식 변화 캠페인 및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한 번의 실태조사로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나 구조적 한계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방향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이정표라는 점에서 2018년 조사는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깊이 있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간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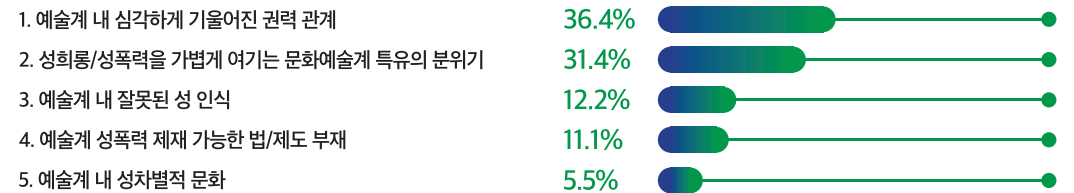


1. 부산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시나요?

2,000 / 3.17

응답자 수(명)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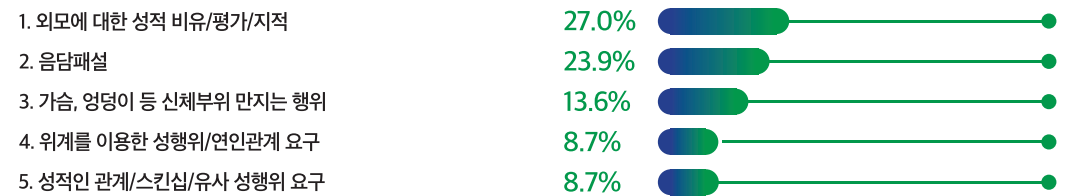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1+2순위 응답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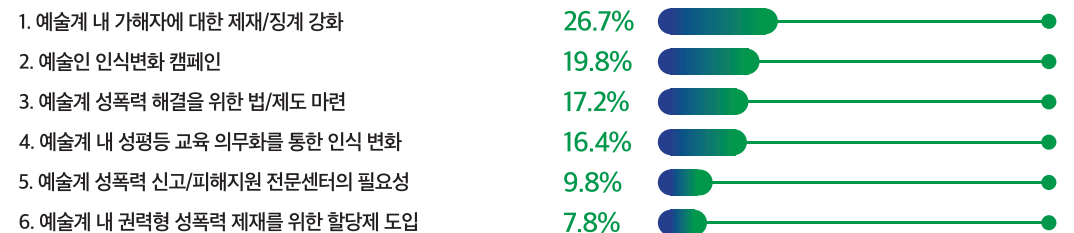
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4.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5.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



출처: 부산문화재단, 「2018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부산문화재단

부산 장애인 생활문화축제 「장끼축제」 개최(10.21.)

부산문화재단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KNN센텀광장에서 부산 장애인 생활문화축제인 「장끼축제」를 개최했다. '장끼'는 장애인의 예술적 끼를 뜻하며 이번 축제에서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의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부산문화재단, “2019 창의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10.22.)

부산문화재단은 10월 26일부터 11월 2일 부산시 일원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2019 창의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2019 창의 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부산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인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목으로 부산 및 부산문화재단의 창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ARTUK’ 앙코르와트에 부산 색을 입히다!(10.29.)

부산문화재단은 7인의 부산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지난 10월 24일부터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ARTUK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교통수단인 '툭툭'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입혀 'ARTUK'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예술가들의 국제 감각을 살리고, 완성된 'ARTUK'을 세계인이 모이는 관광지 앙코르와트 일대에 운행함으로써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20년도 흥티아트센터 8기 입주작가 공모(11.8.)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흥티아트센터에서는 2020년을 함께할 8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부산문화재단 흥티아트센터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무지개공단 내에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서부산권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한 거점 공간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11.8.)

부산문화재단은 11월 12일부터 부산문화재단의 문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바람직한 지원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5회에 걸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예술가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별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선정(10.15.)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로 안은미 안무가를,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으로 영화 <김복동>을, 양성평등문화 지원상 수상단체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를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꿈꾸다(10.3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0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한반도 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반도 문화 포럼'은 문화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제14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11.04.)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4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 예술인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이다.

문화예술 관람률 첫 80% 돌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11.20.)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0일,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정책성과 중 일부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고, 주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로 밝혀졌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19.10.~11.)

부산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울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문화관광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대구문화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가 있는 삶’ 5년 청사진, 지역이 직접 만든다(10.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1월 19일 서울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기본 방향 등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방향, 추진과제 및 사업 계획에 대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 비전 2030 발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로 새 출발 다짐(1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중장기 전략 ‘아르고 비전 2030’을 10월 22일 발표하고 22일 아르고 예술극장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발족(11.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월 18일,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지방자치 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방안,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경남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좌담회 열려(11.04.)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1월 5일 창원시 카페 사파동에서 문화도시 지정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도내 5개 도시(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에 설치한 문화도시 지원센터장 및 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도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광역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구문화재단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10.31.)

대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성과공유 프로그램이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대구광역시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대구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도시 중 하나로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라는 비전 아래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10.31.)

대전문화재단은 11월 5일 대전 예술가의집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재단의 10년간 발전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념 전시와 ‘새로운 10년, 대전문화재단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울문화재단

<2020 서울예술지원> 공모 시작(11.22.)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2020 서울예술지원> 공모를 11월 26일부터 시작하며, ▲예술창작지원 ▲예술기반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1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예술지원의 설계를 위해 ‘예술지원체계개선TF팀’을 신설하고 예술인 간담회, THE넓은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자문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개선의견을 모았다.

울산문화재단

울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UCGA) 기획자들이 만드는 지역문화 프로젝트 ‘돌아와요-장생포항에’ 개최(10.28.)

울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UCGA) 출신 기획자들이 기획·주관하는 지역문화 프로젝트 ‘돌아와요-장생포항에’가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생포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어여와, 여그가 전북이여’ 2019 전라북도 문화정책 콘서트 개최(11.0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도민과 문화예술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6일 2019 전라북도 문화정책 콘서트 ‘어여와 여그가 전북이여’를 개최했다. 이 콘서트는 전북권 문화재단인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전주문화재단·익산문화재단·완주문화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다.

제주문화재단

도민 제안으로 문화예술사업 전략 만든다, JFAC 미래사업 전략 워크숍 개최(10.21.)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 주도로 미래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10월 31일 예술공간 이아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정토론과 플로어 의견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주체들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현장에 맞는 의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전 의제별 참가자를 모집하며 의제별로 회의를 거친 후 공동 의제를 도출하는 ‘미니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산관광공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락 라운드 테이블’ 개최(10.21.)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0월 21일 11시부터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부산의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부산 관광업계와 함께 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2019년 디자인산업 정책 토론회 개최 (10.30.)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이 주도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디자인산업 정책 토론회’를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자인 사업화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디자인주도 제조 경쟁력 강화기반 확대, 플랫폼으로서의 디자인 진흥기관 역할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사업명	세부사업 / 분야	사업일정	부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기초예술영역>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기초예술영역>	-문학	공모:2019.11.29. ~ 12.16. 접수:2019.12.10. ~ 12.16. 결과발표:2020.2월 말	예술지원팀 051-745-7233~8
	-시각(미술, 사진, 영상) -공연예술 전 분야 -전 분야 비평·평론·학술	공모:2019.11.26. ~ 12.23. 접수:2019.12.17. ~ 12.23. 결과발표:2020.2월 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공모:2020.1.1. ~ 2.7. 접수:2020.2.3. ~ 2.7. 결과발표:2020.2월 말	예술지원팀 051-745-7232
토요상설전통민속놀이마당 행사운영단체 공모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행사운영단체 공모	공모:2020.1.13. ~ 1.31. 접수:2020.1.27. ~ 1.31. 결과발표:2020.2월 초	문화유산팀 051-745-727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기획특화, 지역문화심화영역>	-다원예술 -거리예술 -레지던스활성화지원 -국제예술교류 -브랜드콘텐츠제작 -우리가락우리마당 -문화예술공간창작지원지원	공모:2020.1.29. ~ 2.25. 접수:2020.2.19. ~ 2.25. 결과발표:2020.3월 말 이내	예술지원팀 051-745-7233~8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꿈다락>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	공모:2020.1월 말 접수:2020.2월 초 결과발표:2020.2월 말~ 3월 초	문화교육팀 051-745-728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지특>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2020.1월 말 접수:2020.2월 초 결과발표:2020.2월 말~ 3월 초	문화교육팀 051-745-7284
메세나 활성화지원	일반형 공모 문화예술 전 분야	공모:2020.2 ~ 3월 중 접수:2020. 2 ~ 3월 중 결과발표: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	예술지원팀 051-745-7234
예술인일자리파견지원	기업, 예술인(전 분야)	공모:2020.2~3월 중 접수:2020.2~3월 중 결과발표:2020.4~5월중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16, 7218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 분야	공모:2020.2월~6월 중 접수:2020.2월~7월 결과발표: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	문화공유팀 051-745-7265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강사 파견	공모:2020.2월 중순 접수:2020.2월 말 결과발표:2020.3월 중순	문화교육팀 051-745-7282
청년문화 육성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지원	공모:2020.2월 접수:2020.3월 결과발표:2020.7월	청년문화팀 051-745-7292
청년문화 육성지원	-문화로 공간창업지원 -청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아트상품제작지원 -청년문화활성화사업	공모:2020.2월 접수:2020.3월 결과발표:2020.4월	청년문화팀 051-745-7292~3
청년문화 육성지원	청년문화전문인력양성	공모:2020.3월 접수:2020.4월 결과발표:2020.5월	청년문화팀 051-316-7632
문화나눔	전 분야	공모:2020.3~6월 예정 접수:2020.3~7월 결과발표: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	문화공유팀 051-257-8033
메세나 활성화지원	기획형 공모	공모:2020.5~7월 예정 접수:추후공지 결과발표: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	예술지원팀 051-745-7234
문화예술행사보조	문화예술 전 분야 (2021년 일몰 예정)	공모:2020.2~3월 예정 접수:추후공지 결과발표:접수마감 후 1개월 이내	-